

월드뉴스 (국내)

News Point



DB뱅크

데이콤 천리안

내무부 PC통신 대화 행정시대 열려

내무부 장관실에 PC통신이 개설돼 국민과 정부간에 컴퓨터를 통한 대화행정시대가 열리게 됐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지난7일 데이콤의 “천리안”서비스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내무부 전용 창구를 개설, 가동시킴으로써 컴퓨터로 국

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대답해 주는 새로운 대화행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무부가 7일 오전 9시부터 가동한 PC서비스는 *내무장관과의 대화 *내무행정정책 건의·제안·비판 *민원상담 *국민신고·고발(재해위험시설, 쓰레기 투기 등) *여론조사 *내무행정 소개 *지방행정 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7가지 분야이다.

내무부는 장관에게 직접 보내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관이 여과없이 직접 수신 검토 답변하게 되며 행정에 대한 건의 및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또 필요에 따라 내무행정 시책과 관련한 적정한 테마를 선정, 천리안을 통해 여론조사 활동도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축은 밝은 미래를 보장 - 천리안 "저축정보"

밝은 미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축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2월 7일부터 각종 저축에 대한 정보를 천리안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저축 생활 수기'를 비롯하여 저축에 관한 조사자료 안내등도 한다.

저축의 필요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만큼 저축에 관한 인식도는 높다. 그러나 저축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몰라 가끔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방법은 저축정보(GO SAV) 또는, 천리안 TOP 메뉴 18번 '공공/지역/농수산'의 11번 '저축 정보'를 선택하면 되며 이용요금은 분당 30원이다.

[경찰청] '112 온라인 서비스', 2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 경찰 행정도 온라인 시대를 개막

2월 7일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가 천리안을 통해 시작됩니다.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경찰행정에 대한 안내와 각종 민원 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 한다.

민원상담은 물론 제보/제안, 부조리/고발센터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최대의 영상/음향기기 정보, AVI 정보가 추가 됩니다.

영상과 음악, 이것은 바쁜 현대 생활에 활력을 준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의 민감함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기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천리안에서 국내외 각종 '영상과 음향기기'의 정보를 AVI가 제공한다.

영상/음향기기 정보를 제공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AVI 영상/음향기기 정보", 키워드 검색과 메뉴(정보)를 추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으로 離散家族을 찾아드립니다.

- KBS 사회교육방송국 및 통일원과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株)데이콤(社長 신윤식)이 KBS 사회교육방송국(局長:鄭亮), 통일원과 공동으로 自社の 컴퓨터 통신서비스인 천리안에 「이산가족 정보」를 개설한지 이틀이 지난 2월 7일 상오 현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애절한 사연과 부모, 형제, 친척을 찾는 편지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또한 데이콤은 국내 최초로 컴퓨터통신을 이용, 「이산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전주), 충청(대전), 강원(원주) 등 6개 지사와 전국 40여개 주요도시에 설치돼 있는 지정점을 「이산가족 센터」로 활용, 무료로 검색대행을 해주거나 가족상봉 장소로 활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천리안 「이산가족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리안 접속번호인 '01420'을 눌러 천리안과 연결, 천리안 처음화면에서 「18. 공공/지역/농수산/이산가족」을 선택한 후 다시 세부화면에서 「31. 이산가족 정보」를 찾아 해당정보를 이용하면 되며 이때 사용요금은 분당 25원이다.

「데이콤 메일400」 국내/국제간 첨단 기업통신서비스로 인기

- '94년 2월 현재 945 가입자가 이용, 연평균 가입자 증가율 122%
- 천리안과의 연계서비스로 기업통신 뿐만 아니

라 DB검색도 가능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국내/국제간 통신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데이콤의 메시지 처리시스템(MHS)인 『데이콤 메일400』이 기업이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株)데이콤(代表理事 社長 : 申允植)이 '89년 10월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데이콤 메일400』은 서비스 개시 당시 44 가입자에서 '94년 2월 현재 945 가입자가 이용, 연평균 122%의 높은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이용한 통신량만도 월평균 2십2만8천여건에 달한다.

『데이콤 메일400』이 이용자들로부터 이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글로벌네트웍 서비스인 인포넷을 토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손쉽게 메일400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상 위의 PC하나로 컴퓨터간의 통신은 물론 컴퓨터를 통해 팩스 및 텔렉스로의 전송이 가능해 통신비 및 인력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는 『데이콤 메일400』 이용자들이 천리안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메일400을 통해 간단히 천리안에 접속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메일400을 통해서도 뉴스/날씨/스포츠 등 각종 생활정보와 증권/부동산, 노무/세무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海外 우수프로그램 公開

— 데이콤, 천리안에 「신세대자료방」新說

데이콤은 최근 PC통신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콤은 천리안에 「신세대 자료방」코너를 신설, 미국의 컴퓨서브, 빅스, 델피(Delphi), 제니(Geni)社 등 해외 PC통신서비스의 공개자료와 국제학술전산망인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수록했다.

정보시대 “잡지기사 정보”제공

정보시대는 지난 2월 16일부터 데이콤의 PC통신 서비스인 천리안에 ‘정보시대 정보’를 개설했다.

정보시대는 지난 1984년 창립 이후 월간 정보통신시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윈도우세계의 3종 월간지와 컴퓨터 관련 각종 단행본을 출판하는 잡지사이다.

“정보시대 정보”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비롯해, VAN, DB, 이동통신, 데이터통신, PC통신 등 점차 확대,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영역의 기술동향과 서비스 업계의 움직임 등을 소개하는 월간 정보통신시대 기사, PC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의 최신 기술동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기사, 프로페셔널리즘과 하이테크놀러지를 총동원해 윈도우 관련 최신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업계 동향과 뉴스를 다루는 월간 윈도우세계 기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정보시대에서 발행하는 컴퓨터 관련 기술 서적, 정보화 관련 교양서적, 정보산업체 기획물과 매뉴얼도 검색 가능하다.

기사정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윈도우 세계가 독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이달의 디스켓’에 실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정보시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어 공개 프로그램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정보시대 정보에는 국내외 정보산업계의 소식과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시대 공지사항, 건의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시대 정보를 이용하려면 (1) ‘천리안’ 초기 메뉴에서 “GO IA”를 입력하거나 (2) ‘천리안’ 초기 메뉴에서 7. 뉴스/날씨/스포츠 선택후 32. 정보시대 선택하면 된다.

정보 이용료는 분당 50원이다.

한국 PC통신 <HiTEL>

주식시세정보 유료화로 전환

지난 '93년 8월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한

국증권전산 주식시세정보(go koscom)가 오는 '94년 3월 11일(금요일)부터 분당 40원의 유료정보로 전환된다.

당초 동서, 고려, 대신, 현대증권 등 4개사가 제공하던 주식정보가 “주식시세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문제로 그 제공처가 '93년 8월부터 한국증권전산으로 바뀐 이후, 당사는 한국증권전산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서비스 품질 및 당사가 한국증권전산으로 지급해야할 정보료를 감안, 부득이 유료화로 전환하게 되었다. 요금은 같은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타서비스업체가 부과하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주식시세를 보실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분당으로 계산되는 사용시간중 검색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예:종합주가지수를 선택했으나 내용이 출력되지 않음)의 사용시간은 과금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순수하게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게 되며 주식정보의 유료화와 함께 당사는 회선의 품질을 비롯한 서비스의 품질을 지금보다 한차원 높여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더욱 더 새로워진 국민은행 홈뱅킹

그동안 국민은행이 제공해 온 홈뱅킹 서비스가 고객이용 편의를 위해 대폭 개선, 보강되면서 명칭을 『국민하이터치 서비스』로 바꾸어 '94. 2. 21부터 새롭게 출발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첫째, 고객의 이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금까지 매월 4,000원이던 월 기본 수수료를 없앴다. 따라서 홈뱅킹을 많이 찾지 않는 고객들도 이제 부담없이 국민은행 홈뱅킹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다른은행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타행 계좌이체의 실시와 함께 타행 자기앞수표 조회, 국민카드 이용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가 새로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훨씬 다양해 졌다.

또한 조회서비스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나올 필요없이 PC에서 직접 이용신청을 등

록할 수 있어 등록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음성지원용 educomm신버전 출시

그동안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코스웨어)을 다운받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오던 “educomm”프로그램이 PC 기종에 따라 약간씩 나타났던 버그 현상을 개선하였다. 화일의 구성은 전과 같이 EDU.COM, HiTEL.BAT로 구성되어 있고 다운하는 방법도 그전과 동일하다. '94년 2월 7일 이전에 받았던 프로그램에서 버그현상이 나타났던 분들은 기존에 파일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전송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다운로드 학습정보를 보려면

- 1)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 5. 교육/취업 ---> 1. 교육정보 ---> 3. 다운로드학습을 선택하거나
- 2) 공공정보 초기화면에서 13. 다운로드학습을 선택하거나
- 3) 어디서나 “go ktdown”을 선택하면 된다.

삼성휴렛팩커드를 하이텔에서...

세계적인 프린터 <HP레이저젯>을 탄생시킨 삼성휴렛팩커드가 15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삼성 H/P는 크게 알림사항란, 제품관련사항란, 고객지원사항란, 고객과의 만남란을 개설하며 특히 마지막 란에는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양케이트 조사란을 개설하였다.

기술정보 및 각종 자료들을 보유한 자료실도 개설되어 이용자들의 컴퓨터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이다.

위 정보를 이용하려면

- 1) 어느 화면에서나 ‘GO SHPD’를 입력하거나
- 2) 초기화면(top)에서 15번 광고/홍보란의 3번 컴퓨터 [H/W]란의 3번 삼성휴렛팩커드를 선택하면 된다.

광고/홍보란에서 쌍용을...

다양한 컴퓨터의 세계로 초대하는 (주)쌍용이 하이텔에 서비스를 개설한다. (주)쌍용의 각종 제품 소개와 좋은 자료들만 모아놓은 보물상자 자료실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때로는 게임의 세계로 때로는 기억매체의 선두주자로 다가오는 (주)쌍용의 정보를 이용하려면

- 1) 어느 화면에서나 'GO SSSY'를 입력하거나
- 2) 초기화면(top)에서 15번 광고/홍보란의 3번 컴퓨터 [S/W]란의 31번 (주)쌍용을 선택하면 된다.

현대건설란 개설 안내

아름다운 지구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아파트가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현대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평형의 집을 볼 수 있는 평형별 투시도가 VTX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1) 어느 화면에서나 'GO HYUN'를 입력하거나
- 2) 초기화면 (top)에서 15번 광고/홍보란의 9번 건설/레저를 선택하면 된다.

다양해진 건설/레저란이 좋은 집 선택을 도와 줄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새로운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국내관광지안내 정보에 '관광음부즈맨제도' '해외관광동향' '94 한국방문의 해 정보'등이 2월 16일부터 추가로 서비스된다. 이는 국내 관광명소를 소개하던 기존의 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속보 제공과 쌍방향성이라는 PC통신의 특성을 활용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음부즈맨제도 : 누구나 한국관광공사의 정보제공자가 되어 우리 국토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정보의 개선점을 지적할 수 있

는 코너

* 해외관광동향 :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에서 전하는 업계 관련뉴스를 신속하게 전달

* '94 한국방문의 해 정보 : '94년 내외국인을 위한 행사 및 일정과 관광코스, 숙박지를 안내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 1) (초기화면 → 4.생활/문화 → 6.여행 → 1. 국내관광지안내)의 순으로 선택해 가거나
- 2)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kntc'를 입력하면 된다.

나를 찾는 모임 - 사랑의 전화

PC통신을 활용, 상담의 영역을 넓혀온 '사랑의 전화'(go counsel)가 '나를 찾는 모임'이라는 주제로 2월 25일-3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8시-10시, 그룹상담을 갖는다.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을 찾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또래집단과의 교류 속에서 행해진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나를 찾는 모임'은 자아발견 및 이해와 수용에 대한 주제들을 놓고 상담자의 진행에 의해 컴퓨터 통신을 통한 대화를 하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상담에 참여하려면 '사랑의 전화'에 참여신청(접수 ID:counsel12)을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령, 성별, 자기소개, 집단에 대한 희망사항, 알고싶은 내용 등을 적어보내 주면 몇 분을 선정하여 상담용 ID를 부여해준다.

자세한 일정 및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1) 또는 (2)와 같이 하여 '사랑의 전화' 상담실 개설공고를 보면

- 1) (초기화면 → 4.생활/문화 → 11.종교/상담 → 51.사랑의 전화)의 순으로 선택해 가거나
- 2)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counsel'을 입력하면 된다.

경찰청 민원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PC통신 하이텔에 경찰민원 2월 7일에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본 서비스는 PC통신을 통하여 경찰청이 경찰제도, 경찰행사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은 경찰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또 경찰제반 업무에 관하여 경찰청장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7번 공공정보를 선택한 51민원처리-112 경찰청을 선택하면 된다.

또는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go NPA(경찰청)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전국의 지방경찰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민원 서비스

국민과 경찰이 보다 가까워 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PC통신 하이텔에 경찰민원 서비스를 개설하였다.

본 서비스는 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통신을 통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업무안내, 민원상담 및 접수, 인천경찰관서 현황, 경찰행사, 경찰공무원 및 의경 모집, 불법행위 신고, 모범경찰에 관한 국민의 기탄없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코너로 2월3일에 개설하였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17번 공공정보를 선택한후 51민원처리-121. 인천경찰청을 선택하면 되며 또는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go icpol(인천경찰청)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민원서비스는 1차 인천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서울전역 및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이텔 가입자 70% 이상 직장인

PC통신 이용자가 크게 바뀌고 있다. 호기심 많은 10대들의 놀이 대상이었던 PC통신이 이제 직

장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이를 이용하는 연령층도 다양해 졌다.

최근 한국 PC통신(주)이 실시한 “93년 PC통신 서비스 운영실태 조사분석”에 따르면 전체 하이텔 가입자 가운데 회사원 31.7%, 자영업 12%, 교육자, 공무원, 법조계 종사자 10% 등으로 나타나 직장인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PC 통신 이용시간을 보면 밤 10~12시 사이에 절정을 이루어 평균 7천4백건이 접속되었으며 이어 오전 8시에 6천9백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아침이용시간 급증은 직장인들이 출근직전 시간을 활용해 PC 통신의 뉴스속보, 기업정보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형태를 보면 전자우편, 동호회 등의 BBS 이용률이 전체의 76.2%를 보이고 있으며 DB검색은 23.8%로 나타나 BBS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그러나 지난해 DB검색 이용률인 19.1에 비해 DB이용률이 증가해 점차 PC통신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이용자 및 성별 분포도를 보면 전국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가입자들의 이용률이 68%로 나타나고 남성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아직도 지역별·성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통해 24시간 무인서비스 제공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사설교환기 사용 고객들에게 더욱 나은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기 위해 PC통신을 통해 24시간 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성이 사설교환기 고장수리 VAN 서비스(TSG)를 본격 가동하게 됨에 따라 사설교환기인 스타렉스 시리즈 및 NEAX 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 장애처리는 물론 설치·정기점검·응급조치 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현장에서 PC를 통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동된 장애조치 안내 서비스는 금성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사설교환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자체 부가가치통신망인 GINS를 통해 제공되는데 관련 업체들에만 시스템을 공유하는 폐쇄이용자 그룹(CUG)형태로 서비스 되므로 집중적인 AS는 물론 사설교환기 사용자들의 독자적이 부가가치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시스템 장애조치 방법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자우편 등의 통신 서비스와 입찰·법률·세무정보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정보DB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기업의 정보 마인드 확산을 유도해 시스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설교환기 고장수리 VAN 구축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2일 이미 설치된 사설교환기의 장애발생시 24시간 무인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설교환기 고장수리 VAN(부가통신서비스)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사설교환기의 장애처리정보는 물론, 정기점검, 응급조치 요령등 다양한 정보를 현장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유지 보수에 따르는 간접비 절감을 물론 업무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성정보통신의 부가가치통신망인 GINS에 가입하거나 데이콤의 DNS(정보통신망)를 통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문의 02)630-5621

산업기술정보원

KINITI-IR이 서비스하는 산업기술정보 이용자 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산업기술정보은행(KINITI-

IR)이 서비스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3일 기정원이 집계한 93년 산업기술정보은행 이용실적에 따르면 정보 이용회원은 92년보다 9.0%정도 늘어난 9천 5백3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8.0% 늘어난 4천5백23명을 기록, 전체의 47.4%를 차지한 것을 비롯 대기업 이용자는 1.4% 늘어난 9백20명으로 전체의 9.7%를 점유했다.

연구소 및 대학 이용자는 92년보다 7.8% 늘어난 3백80명, 공공 기관은 20.9% 늘어난 1백33명, 협회 및 조합은 11.4%증가한 1백56명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는 개인정보이용자가 12.7%나 크게 늘어 전체 이용자의 3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업종 이용자가 전체의 15.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화학공업종이 14.9%, 전기전자업종이 8.3%를 차지했다.

94 새해 사업계획 점검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은 신경제 5개년 계획 동안 21세기초 기술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수립한 범국가적 기술혁신체계 확립에 올해 사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기정원은 올해 기정원 발전 5개년계획 추진 2차연도를 맞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각종 과학기술정보와 산업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처리·보급 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상공부 산하 기관의 납본제도를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온라인 서비스하는 한편 해외정보를 우리말로 DB화하는 작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정원은 또 교육·연구·행정 등 국가기간 전산망 및 민간 부가가치 통신망을 KINITI-IR와

연결,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정원은 이러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96MB급 검색전용 전산설비를 도입하고 특허명세서 등 화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백GB 광자기디스크를 갖춘 화상정보시스템과 일한 자동번역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반.

체신부

VAN사업 신고제로 전환

부가통신(VAN)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정보통신 요금부담이 경감되는 등 부가통신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체신부는 올해부터 전면 개방되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부가통신사업의 진입조건을 신고제로 전환,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체신부는 또 정보통신 이용확산의 일환으로 관련요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PC통신에 접속되는 시내전화료를 30% 이상 감면하고, 올 상반기중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패킷교환망에 접속되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접속료 감면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전송량을 비롯해 접속시간·전송속도 등 다양한 선택조건을 제시, 이를 이용자들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선택 요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밖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가통신사업을 특장설비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하고 시스템통합사업의 유지보수 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위성방송 전송방식 잠정기술 확정

오는 95년부터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실시하게 될 위성방송에 대한 전송방식의 잠정기술기준이

확정돼 송수신장치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15일 전자통신연구소를 비롯해 방송사·한국통신·생산업계로 구성된 기술기준검토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성방송 전송방식잠정기술(안)을 전파 통신기술개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잠정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은 *B-ISDN(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 및 멀티미디어와의 호환성을 고려, 국제표준기구에서 채택할 예정인 디지털 동영상압축 알고리즘(MPEP-2)을 기본으로 *NTSC표준 TV신호를 중계기 1대당 3채널로 시분할 다중하고 *HDTV와 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QPSC(사상위상변조)변·복조 방식의 채택 등이다.

이로써 방송용 중계기 3개를 탑재하는 무궁화위성은 중계기당 3개 채널을 다중화함에 따라 모두 9개 채널의 방송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이번의 잠정기술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자통신연구소로 하여금 수신장치 제조업체 및 관련기관 등에 기준자료를 배포, 올해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성방송 시스템의 송신장치는 전자통신연구소와 금성정보통신 및 캐나다의 MPR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신장치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 경쟁력 향상 겨냥 "국제화추진단" 발족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국가산업 전반의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기본통신시장의 다자간 협상에 대비하고 국내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신산업국제화추진단"이 구성됐다. 15일 체신부는 박성득 통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통신사업 국제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추진반으로 국제협력반(반장 김창곤 통신기술심의관), 협상 전략반(임정재 통신협력단장), 홍보대책반(이종순 공보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제협력반은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통신산업계 대표,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전략 수립 및 지원을 맡게 되며 협상전략반은 통신사업자와 전문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기본통신 분야의 다자간 협상전략을 수립, 관련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홍보 대책반은 시장개방과 관련된 공청회·세미나·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통신산업의 국제화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관련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체신부는 이밖에 통신사업 국제화추진단 자문 위원회(위원장 김세원 서울대교수)를 설치, 통신사업의 국제화 추진방안에 대해 자문을 맡길 계획이다. 이번에 발족된 통신사업 국제화추진단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체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과 연계해 “통신망의 고도화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컴퓨터기술의 자립화”를 기술 개발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구개발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매출액중 일정비율을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투자토록 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투자비는 지난해부터 오는 97년까지 총2조5천6백84억원이 투입되며 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난해 1천40억원에서 올해 2천4백60억원으로 확대되며 오는 97년까지 총1조4천4백70억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한정된 국내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연이 연구개발기능을 분담, 재정립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의 연구개발 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원천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올해부터는 기술개발활동의 국제화에 적극 나서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지원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을 적

극 도입할 방침이다.

체신부가 마련한 주요 연구개발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통신망 기술에서는 *오는 2000년대의 정보화사회의 하부기반구조로 부상할 B-ISDN(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의 상용화를 위해 오는 97년까지 5천36억원을 투입해 교환장치를 비롯해 전송장치·멀티미디어단말장치 등을 개발하고 *디지털이동통신분야에서는 오는 95년까지 총8백11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의 이동전화교환기 및 기지국·단말기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5년 발사될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직접 위성방송서비스 보급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1백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디지털 위성방송 송신기 및 가정용수신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컴퓨터기술분야에서는 *현재 개발중에 있는 고속중형컴퓨터인 주전산기Ⅲ보다 성능을 20배나 향상된 고속병렬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5백8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4년간 1백8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3백 한글단어로 사고가 가능한 지능형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시스템소프트웨어기술개발을 위해 국산주전산기 1백대를 분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1백만건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체신부는 이밖에도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8백억원을 투입해 통신망을 통한 4백여개의 공공DB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담부서 이달중 설치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전담기구가 이달안으로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7일 체신부가 마련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운영방안에 따르면 체신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적인 정책심의 기능을

맡기고, 체신부 조직내에 실무위원회인 전담부서를 신설해 통신망 구축계획 및 운영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통신에 통신망 구축 및 운영을 전담시키고, 한국전산원은 차세대 전산망 기술개발을, 전자통신연구소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기술개발 및 선도시험망(테스트베드) 운영을, 통신업체들은 멀티미디어 단말기 기술개발 등을 각각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 추진

체신부는 대부분의 경제부처가 조직축소 내지 기능조정으로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보통신부문의 역할증대에 따라 '정보통신부'로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사업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 종합정책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검토되고 있는 현행원 범위내의 직제개편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조직법개정과 연계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인 '정보통신부'개칭과 함께 늘어나는 업무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령 차원의 직제개편이 아니라 법률(정부조직법)개정 차원의 조직개편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토중인 조직개편내용으로는 기본통신시장개방에 대비, 기존의 '통신협력단'기능을 보강해 통신의 국제화관련실무를 전담하는 '통신협력국'을 신설하고 정보화관련 종합정책담당부처로서 기존기능의 조정도 아울러 추진한다는 것.

이와 함께 통신사업의 경쟁확대와 민영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간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갖는 통신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공정경쟁보장과 사업조정기능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조만간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총무처에 넘길 계획이다.

전용회선 공동사용범위 확대

체신부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전용회선의 음성 전용과 데이터전용 구분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올 3월부터는 전용회선의 공동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시내 전용회선과 공중통신망과의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체신부는 전용회선 공동사용 범위를 일반이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1백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고의 1백분의 1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 등에 한하고 있는데 3월부터는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언론·방송·출판 관련기관 상호간,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금융기관 상호간,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자 상호간, 그리고 위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이용상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음성 전용회선과 공중 통신망과의 접속도 그동안 금지되었던 것을 동일 통화권에서 사용하는 시내 전용 회선의 경우 공중통신망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외·국제전용회선의 공중통신망 접속에 관해서는 앞으로 요금 체계 및 통신사업 구조 조정 등과 연계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이용약관을 개정해 3월부터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 등 전용회선 이용자의 통신망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통신

데이터통신망 하이넷P 전국적으로 구축

한국통신의 데이터통신망인 하이넷P가 전국적으로 구축됐다. 한국통신은 지난 92년에 서울·부산 등 전국 29개 지역에 패킷 데이터 통신망을

개통한데 이어 지난해 1월부터 1백60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고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하이넷P로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데이터통신망은 이 분야의 선발주자인 데이콤의 DNS와 한국통신의 하이넷P로 이원화돼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통신은 이번 하이넷P의 증설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강원·전북·부산·경남지역에 7대의 주교환기를 증설하고 부교환기 42대의 패드장치 45대를 각각 추가로 설치해 전국망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데이터통신망 증설로 하이넷P의 포트수는 총 1만7천개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큰 패킷통신망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한편 한국통신측은 이번에 증설한 하이넷P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한글 메뉴방식을 채택해 데이터통신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이와 가정주부도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내달부터 상용화

국제학술연구망인 인터넷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본격 상용화된다. 18일 한국통신(KT)은 그간 학교·기업연구소 등 회원제로 제한해온 인터넷 서비스를 오는 3월1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대전·포항지역에서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번에 상용화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을 PC등 단말기를 비롯해 호스트 컴퓨터·근거리통신망(LAN)등 3가지 형태로 다양화해 서비스를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이용지역을 기준으로 국내와 국제를 포함할 경우 *PC접속시 9.6Kbps 이하가 월간 4만원 *호스트컴퓨터 접속시 9.6Kbps급 이하가 12만4천원, 19.2Kbps급이 14만1천원 *LAN 접속시 56/64Kbps급이 93만7천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에 결정한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일반공중통신망 요금에 비해 절반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앞으로 이 분야 연구·학술 종사자들의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통신은 올해안에 인터넷 서비스의 상용화 지역을 서울·대전·포항에 이어 부산을 비롯, 광주·대구·원주·청주·강릉·인천·수원·제주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기업통신망 6천회선 증설

한국통신은 공중통신망을 자가망처럼 쓸 수 있는 공중기업통신망(CO-LAN)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1백 15개 전화국에 6천회선 상당의 공중기업통신망 시설을 증설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92년 1백 51회선으로 상용화를 시작한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의 이용회선이 1월말 현재 1천6백회선으로 늘어나는 등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1백1억원을 투입, 시단위 이상 전화국까지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94개 전화국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가 올 연말에는 모두 2백여개의 전화국으로 확대되고 내년말까지는 전국망이 완성될 예정이다.

한국통신은 특히 금년중 부가서비스로 플랫폼(데이터정거장)을 개발해 공중기업통신망으로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 서비스인 하이텔 천리안은 물론 민간 VAN(부가통신)사업자망과도 상호 연동해 정보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해 줄 계획이다.

공중기업통신망은 기존의 일반전화회선으로 전화 팩스 PC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PC통신 및 전용회선으로 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에 비해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망구축도 빨리 할 수 있어 기업체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현재 42개 업체가 본사 지사 공장 대리점등을 공중기업통신망으로 연결해 시설 전산망처럼 사용하고 있고 판매시점관리나 신용카드조회 재택근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삼성물산의 경우 기업전용 전산망으로 2백60회선을 쓰고 있고 금강제화는 판매관리쪽에 2백60회선을, 한국신용정보는 신용카드조회에 2백회선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보망 10월부터 시범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병원업무 및 의료보

협청구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의료정보망(MED I-NET) 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1백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된다. 한국통신은 6일 기업간에 교환되는 문서 또는 거래정보를 표준화하고 코드체계를 이용해 컴퓨터통신으로 주고받는 EDI(전자문서교환)를 의료분야에 도입한 의료정보망을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우선 서울시내 1백개 의료기관을 수용해 의료정보망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뒤 오는 97년까지 전국 5만여 의료기관으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이를 위해 총 4백57억원을 투입해 전국 주요도시에 EDI중계용 노드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드웨어는 국산주 전산기 타이콤을 사용하는 한편 보험자격 DB, 해외의료 DB, 의학관련논문, 의약품정보 등 각종 DB를 구축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의료정보망이 전국적으로 이용될 경우 지금보다 의료보험 처리비용을 70% 이상 줄일 수 있어 연간 8백27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료보험처리기간도 현재 약 90일에서 15일 이내에 단축할 수 있게 되며 연간 1억6천만장에 달하는 의료비 지급청구서 심사를 자동화하는 한편 병실 혈액처방 논문 등에 대한 의료관련 정보 이용도 훨씬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천년까지 DB 1만5천여종 개발키로

한국통신은 정보통신사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약 5천억원을 들여 1만5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DB는 올해 3백83개, 95년에 4백49개, 96년에 1천2백57개, 97년에 2천2백65개, 98년에 3천3백24개, 99년에 3천3백68개, 2000년에 3천4백4개를 연차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DB 구축과 함께 사업자 육성의 일환으로 DB 이용료회수 대행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료 회수 대행제도는 사업자 육성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한국통신의 전화사용료 징수시 청구서를 한장에 보내 요금을 받아 주는 제도다.

개발예정인 DB중 학습용 DB는 한국통신의 주력 수익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학습용 DB는 2000년까지 3백71억원을 투자해 1백85개를 개발하고 온라인 및 다운로드 방식, 음성과 영상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최신 기술이 적용된다.

공공DB는 이 기간동안 8백74억원을 들여 8백99개를, 민간인에 의한 DB개발에는 1만3천개에 4백55억원을 지원, 국내 DB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예정이다.

또 해외 DB의 도입도 크게 확대, 1백2억원을 투입해 2백17개를 하이텔에 넣어 국내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PC통신 등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한국PC통신, 에이텔 등 PC통신 전문업체들이 본격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에 대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PC통신(주)은 김근수 신임사장 부임 이후 "중장기 사업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사내 체계를 개편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가동을 했다.

한국PC통신은 체제개편 직전 2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남에 따라 이달말 까지 신입 및 경력사원 25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방안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DB)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및 세제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소장 양승택)가 발표한 "DB산업 육성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서비스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DB제작업의 경우 상품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게 5년 이상이 지나야만 하는 등 막대한 초기투자가 요구되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입법화하고 있는 “단순한 제조업차원의 지원”이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래 정보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과 국가 기반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DB산업은 DB제작과 운영, 통신 등에 관련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지원은 DB 자체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산업에 대해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화 추세에 따라 표준화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표준화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북한만이 관계된 한글과 동양권에 국한돼 있는 한자 DB에 대한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내의 DB산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개발 및 공공기관의 상징적 개발로 비실용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지금처럼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상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윤리위원회 재정립 주장 제기

최근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정보윤리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건전한 정보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육성하기 위해 체신부가 설립한 정보윤리위원회가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달리 최근 700번 사업자 시나리오 심의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체신부는 지난 92년 6월 외설 및 음란 내용이 PC통신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새질서·새생활 실무대책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민간단체 차원에서 불건전 정보의 자율심의 및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 정보윤리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보윤리위원회는 그해 7월 1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무회의를 정기화하고 10월 정보윤리심의 지침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보윤리위원회는 이어 지난해 5월부터 한국통신의 각 지역별 업무취급국에서 관장해 오던 700번 사업자의 시나리오 심의권을 이양받는 등 권한을 보강했다.

또 한국PC통신·데이콤 등 전문 PC통신업체들의 PC통신 서비스내에 불건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불건전 정보 신고전화를 운영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점차 불건전 정보 심의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정보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그동안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9회의 실무회의를 개최, 총 5천 5백여건의 정보내용을 심의해 2백 20여건은 부적합 판정, 4천3백여건의 부적합판정, 8백여건의 보완판정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0번 시나리오 심의 건수가 5천5백여건에 달해 전체 심의 활동의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해외음성정보, PC통신 등 공중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일반 VAN사업자의 정보내용 심의건수는 총 10여 건에 불과했다. 정보윤리위원회가 단순히 700번 사업자 시나리오 심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더구나 700번 사업자의 시나리오 심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700번 사업자들의 시나리오 심의권을 이양받았는데 3개월 후인 지난해 8월 심의권중 실제적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 최종판정권은 다시 한국통신으로 이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보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종 판정권 갖고 있는 한국통신의 의견이 달라 N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 정보윤리위원회가 시나리오 내용을 재심의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을 빚은 것은 정보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

체신부는 정보내용의 윤리심의가 자칫 정보 유통환경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해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율기구 형태로 정보윤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충분한 예산확보야말로 심의의 전문화 및 활동범위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윤리위원회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윤리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기초로 신고에 의존하는 심의보다는 전문적인 인력을 대거 투입, 다양한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사후통제권 및 제재권이 부여되어야 정보내용 심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 컴퓨터보급 극히 저조

*소요량 비해 주전산기 56%, 단말기 69%부족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기는 93년말 현재 주전산기와 단말기 모두 실제 필요한 양의 절반도 채 못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장비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최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산기기보유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산기기 보유대수는 주전산기 267대, 단말기 3만4,405대로. 소요량에 비해 각각 56.4%, 69.4%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중 국립대는 주전산기 97대, 단말기 8,867대로 각각 59.9%, 78.1%가 부족한데 비해 사립대는 주전산기 170대, 단말기 2만5,538대로 각각 54.1%의 부족률을 보여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보급이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보유대수는 주전산기 278대, 단말기 2만5,613대로 부족률이 각각 66.2%, 54.5%로 조사됐는데 특히 국립의 경우는 주전산기 85.7%, 단말기 76.4%의 부족률을 보여 사립(주전산기 64.6%, 단말기 51.3%)보다 크게 뒤져 있다.

한편 4년제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는 평균 3.95명의 교수를 확보, 교수 1명당 학생수가 62.3명이며 전문대는 학과당 4.47명의 교수로 교수 1명당 학생 98.5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솔빛조선미디어

『솔빛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 키트』판매

최근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추는 PC 사용자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솔빛조선미디어(대표이사:이만재)는 93년에 이어 향상된 성능의 새로운 『솔빛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 키트』 모델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판매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키트는 386이상의 PC에 장착되어 PC환경 하의 전세계 어떤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MPC Level II 최고급 권고사양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콤포넌트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반 PC사용자를 위한 제품과 컴퓨터 매너와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용 제품의 두 모델로 판매한다.

파나소닉이나 미쓰미사의 더블스피드 CD-ROM 드라이브와 Media Vision의 16bit사운드보드 신제품인 JAZZ16, 국내 최고의 인기제품들만을 모은 알찬 내용의 번들 CD-ROM 타이틀,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본 제품은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강화된 설치용 프로그램과 사용자 지침서를 함께 넣었다.

특히 전문가용 업그레이드 키트에는 윈도우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저작의 스탠다드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ultimedia ToolBook과 프리젠테이션 도구인 Compel등, 멀티미디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구들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인 정보기술연구소의 멀티미디어 저작 교육코스 할인수강권도 동시에 제공되므로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하기를 원하

는 개발자들과 PC 매니아들에게 가장 가치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표준 멀티미디어 PC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인 「솔빛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 키트」는 PC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출판정보통신

출판종합통신망 'BOOK-NET' 시험서비스 개통!

-2월 1일부터 (02)596-0345로 만나보십시오-

도서, 출판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 자리에

출판산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종합정보통신망이 2월 1일 개통되었다. 한국출판정보통신(BNK)에서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인 'BOOK-NET'이 바로 그것.

'BOOK-NET'은 출판산업계의 모든 업체와 기관, 일반독자를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서적과 출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업계 공동의 '정보고속도로'와 같다. 'BOOK-NET' 접속용 대표전화인 (02)596-0345번이 이용자들을 출판정보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BOOK-NET'의 개통을 위해 수십가지의 출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BNK는 향후 3개월의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일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정보고속도로에서 만나게 될 출판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국내서적정보, 여기에는 모든 신간서식의 상세한 내용을 가장 빠르게 서비스하는 신간정보, 국내에 유통중인 10만종의 서적이 망라된 서적총목록정보, 각종 베스트셀러정보, 추천서적정보, 수상서적정보 메뉴가 있다.

또 일서정보, 영서정보, 외국 정기간행물정보, 국내외 출판기획정보, 기획참고정보등 출판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서비스된다. 이외에도 국내 17개 주요 일간지와 잡지의 출판 기사와 서평을 검색할 수 있는 출판관련기사정보가 선을 보이며, 출판사, 시집, 도서관등 출판관련 업체와 기관의 정보가 DB화되어 제공된다.

'BOOK-NET'은 정보검색의 수단일 뿐만 아

니라, 이용자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통보이기도 하다. BBS(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반 독자들은 출판과 관련된 의견을 올리고, 독후감을 게재하고, 출판되기를 바라는 ?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의 의견은 출판사와 서점이 출판기획과 영업에 활용하는 중요한 참고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BNK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현재 잡지정보, 출판인물정보, 스테디셀러정보, 출판인을 위한 강좌정보 등의 추가서비스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 서점 POS의 개발 및 보급, 출판사와 서점간의 거래정보교환 서비스 등 출판유통 VAN(부가통신망)의 기초작업도 진행중이다. 또 보다 편리한 검색을 위해 'BOOK-NET'전용 에뮬레이터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전에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지금은 정보전생시대 'BOOK-NET'은 출판산업이 어떻게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것인가를 생생히 보여준다.

한국 MJL (주)

데이터베이스응용 국제학술대회개최

한국 데이터베이스학회(KDBS)는 94년도 데이터베이스응용 국제학술대회(ICDA'94-대회위원)장 한국 MJL(주) 대표이사 임만직박사 : 학술위원장 KAIST 문송천 교수)를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실세계 응용”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회계 및 중역정보시스템, 분산정보시스템, 객체지향적DB, 개체정보시스템등 네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영국의 바크레이은행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역정보 시스템과 DB2에서 워크스테이션을 묶어서 같이 쓰는 RDBMS에 의한 크라이언트/서버 구조 및 분산처리를 하는 일본 샤프사의 새로운 회계관리 시스템이 선보여졌다. 인도에서도 참가하였는데 인도 Times지의 신문 광고 관리 시스템과 인도 XEROX의 22개 지점

을 총망라하여 사용하는 경리 트랜잭션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또 OODB에 의한 생산관리 시스템을 발표한 미국등 방대한 DB로 구축된 실세계응용에 관한 외국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국내 논문으로는 이질적 환경에서 18개의 서버와 440개의 크라이언트를 RDBMS로 분산처리하는 대우정보의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총괄관리 시스템, 실세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통합에 관한 논문, 그리고 음성 컴프레션, 객체지향적 모델 X.500DIB, 보안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Modeling 도구등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91년 8월 창립된 후 연구 사업수행과 학술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 한국 데이터베이스 학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술적인 목적의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실증적인 데이터베이스 응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관련산업 축진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앙교육정보시스템 종합학습정보서비스” 내달 상용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산하 중앙교육정보시스템(대표 허필수)은 최근 자체 정보통신망과 호스트 컴퓨터를 확보, 종합학습정보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중앙교육정보시스템은 오는 3월 1일부터 자체 교육전용 PC통신서비스인 “INCOM”을 상용서비스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90년부터 20억원을 투입해 PC통신용 학습 DB를 구축 완료하고 지난해말 10억원을 들여 한국컴퓨터(주)에서 팬덤 기종의 호스트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중앙시스템은 이어 최근 한국통신으로부터 1백 80채널의 하이넷 P망을 임차하고 2백 회선의 공중전화망(PSTN)을 확보, 전국을 연결하는 자체 정보 통신망을 구축했다.

중앙 시스템은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2월 한달

동안 “INCOM”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INCOM서비스의 전용 통신SW인 마스터 디스킷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또 학교 학습에서 사회교육까지 망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학습 정보를 구축, 서비스하는 한편 전자우편·게시판·동호회·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일반 PC통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말에는 데이콤의 DNS망을 활용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출 계획이다.

포스데이타 “윈도즈용 워드프로세서”개발

포스데이타(대표 성기중)가 윈도즈용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했다.

포스데이타는 윈도즈 환경에서 워드프로세싱과 글·도표·그림이 혼합된 문서작성 및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워드 프로세서인 “일사천리”를 개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아리랑”의 전자출판(DTP)나 전자펜 인터페이스 대신에 문서 작성 및 관리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기능 등을 강화했다. 더구나 도표그리기의 경우 한번에 여러개의 선을 그릴 수 있고 간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서나 보고서 홍보자료 등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과 한자 오류 검색기능, 그래픽 이미지 인용기능, 캐미짓 방식의 문서관리 기능 등을 갖고 있다. 한글 1.5x, 2.0, 하나워드, 보석글V, 마이크로소프트의 MS워드, 아스키 등의 데이터와 호환성을 유지한다.

포스데이타는 일사천리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시킨 후속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관 PC통신 오늘 개통 ... 도정관련 정보제공

경기도는 2일부터 데이콤의 ‘천리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새 경기인 도민광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 서버

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도정행사, 시험, 입찰공고, 세법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는 도정 소식과 민원 처리 절차, 구비서류, 비용 등을 알 수 있는 민원 안내 3백30가지, 1백60여곳의 관광지, 1만5천여개 등록공장의 현황 등이다.

또한 주민들은 도지사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도지사에게 도정에 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자료수집과 운영방법을 개발해 데이콤과 연결함으로써 3개월 만에 정보통신서비스를 개통했다.

도는 '새 경기인 도민광장'개설을 계기로 앞으로 도정관련 통계자료 등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재동 경기도 전산담당관은 "주민들의 도정 정보 공유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도정 서비스 제도를 개발하게 됐다"며 "컴퓨터를 통해 도지사와 도정에 관한 자유토론도 가능하며 각종 민원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 전산기기 도입 간소화

정부는 행정전산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전산기기의 도입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31일 "전산기기 도입심의 간소화계획"을 마련, 전산기기의 구입가격이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행정전산망 추진위원회(위원장 총무처 차관)의 사전심의를 생략, 곧바로 전산망 조정위원회(위원장 체신부장관)에서 심의토록 했다.

또 30만달러 미만은 현행대로 심의하되 연구목적 등으로 도입할 경우 기기 설치후 사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개월 이상 걸리던 전산기기 도입 처리기간이 2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0만 달러 미만은 자율적인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 마산-창원 기술정보유통망 추진

마산·창원지역에 기계·소재 중심의 대규모

기술정보유통망이 오는 96년까지 구축된다.

전문 산업분야의 정보망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구축되는 이 유통망이 완성되면, 전문인력이나 핵심기술 또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제조업체들이 지역 안에서 간단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처는 지역정보망의 시범사업으로 오는 96년까지 오는 27억7천만원을 투입해 마산·창원 지역내 5백30개 기업·대학·연구소를 네트워크로 묶고 모두 4백76만1천여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올해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대상은 기업 1백50곳, 대학 4곳, 관련기관 3곳 등 모두 1백57곳이며, 88만여건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정보는 업체·제조상품·전문인력·특수장비·소프트웨어패키지 등 지역전문 활용정보와 규격·특허·전문통계 등 산업기본정보 그리고 기술개발·핵심기술·소장자료 등 심층 산업기술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마산·창원지역이 지역정보화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이 지역에 한국중공업·삼미특수강·삼성항공 등 기계·소재산업 분야의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다, 지역 차원의 산·학·연 협력체제가 이미 갖춰져 있는 등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1년 이 지역의 중소기업 33개사는 전문 기술정보 연구조합을 결성하고 이 가운데 11개 업체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각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문 △부품조달 △특수 설비나 장비 △전문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구해 보고 있다. 부품의 경우 화면에 사양과 화상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부품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로 통하지 않고도 원하는 부품을 구할 수 있다. 또 인력정보의 경우도 전공분야와 연락처가 명기돼 필요한 전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9개기관 설문조사 공공기관 DB공동화용 저조

주요 행정기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가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으로 기관간의 공동활용도가 크게 떨어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비슷한 DB를 자체용으로 중복개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전산원이 9개 기관 1백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공공기관간 전산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7.4%가 부처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타부처의 DB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에 불과했고 나머지 35%는 타기관의 DB를 한번도 이용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응답자 대부분이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DB의 공동이용이 매우 저조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타기관 정보의 사용경험자 중에서도 54%는 이용해본 경험이 다소 있다는 수준에 불과, 공동이용 자체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DB의 공동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제도적인 기반 미흡(32.9%)과 공동이용할 만한 DB부족(30%)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공동 이용에 따른 불편도 매우 커 공동이용 경험자의 95%가 이용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의 공동 이용이 안되면서 각 부처는 필요한 DB를 자체적으로 구축, DB의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토지정보의 경우 내무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건설부·산림청·농수산부·법원에서 중복돼 있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도 통계청·국토개발연구원·육군지도청·토지개발공사·통지개발조합·경찰청·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한국도로공사·각 시도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상공부 산하 산업기술정보원의 산업관련 DB와 과기처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과학DB도 서로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쌍용컴퓨터 “유니페이스” SW 개발물 국내공급

쌍용컴퓨터(대표 장근호)는 네덜란드의 유니페

이스사가 개발해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물인 “유니페이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전담 영업조직과 기술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이 제품의 한글화 작업을 끝냈으며 이달말 제품발표회를 가진 후에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간다.

유니 페이스는 4세대 언어로 구성돼 유닉스 개방형 시스템 환경뿐만 아니라 IBM·DEC·HP 등 메인프레임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해 준다.

특히 이 제품은 DBMS, 통신프로토콜·운영체계·하드웨어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시스템 환경에서도 활용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타뱅크 학습정보 제공

데이타뱅크(주)은 음성정보시스템·PC통신 등 정보통신을 활용해 학습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타뱅크는 우선 오는 3월부터 전화를 통한 학습정보(다이얼큐 선생)를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해 도입한 30회선의 음성정보시스템을 활용, 국민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국어·산수·사회·자연과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대한 학습 DB구축을 완료했다.

데이타뱅크는 이어 고등학교 과목도 추가하기로 했으며 올해말에는 호스트를 도입해 PC통신을 통한 학습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타뱅크는 제공하는 “다이얼큐 선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6만원의 회비를 내야 하며 매월 발행하는 학습지를 받고 학습중에 궁금한 문제의 코드번호를 전자식 전화를 통해 입력하면 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응답해 준다.

News Point

미 인텔 PC-LAN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미국 인텔사는 한국의 PC-LAN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에드 엑스트롬 네트워크 담당 부사장은 지난 4일 한국대리점 교육차 방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드 엑스트롬 부사장은 지난해 전세계 LAN 관리솔루션 시장은 약 1억달러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인텔은 1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5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의 PC-LAN시장 규모가 최근들어 크게 확대되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인텔측은 지난해 10월 PC-LAN관리자들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마트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실시하기로 하고 새로운 PC-LAN관리 솔루션인 LNA Desk Manager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PC LAN시장 급성장

지난해 전세계에 보급된 PC가운데 절반이상이 LAN에 접속되는등 PC LAN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PC LAN을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도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인텔사와 IDC, 포레스터(Forrester)사 등 전문조사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PC LAN관리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시장규모는 2억5천만달러로 이 가운데 HW는 1억5천만달러, SW는 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장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돼 올해 3억3천만달러(HW : 1억8천만달러, SW : 1억5천만달러)에 이어 내년에는 4억달러(HW : 2억달러, SW : 2억달러) 오는 96년에는 5억달러(HW : 2억5천만달러), SW : 2억5천만달러)규모로 연평균 20%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국내의 경우 LAN과 접속돼 있는 PC가 전체 보급대수의 10%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지만 지난해 하반기이후 PC LAN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PCLAN관리 HW 및 SW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금성통신(대표 오세희)이 동체 OBU는 최근 TRS(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와 CT-2(발신전용 휴대전화기) 부문육성에 대한 체신부의 입장이 발표됨에 따라 올해양사업 부문을 크게 강화하기

미퍼시픽 벨, 정보고속도로망 구축

미국의 지역전화회사 퍼시픽 벨사는 정보고속도로사업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고등학교, 지역 대학 및 도서관 등을 연결하는 PC통신네트워크사업에 1억달러를 투자한다. 퍼시픽 벨사는 오는 96년까지 동사가 전화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의 약 7천4백개 공공기관에 네트워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사는 학교, 도서관은 ISDN(종합디지털 통신망)에 필요한 설비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설비완료후 1년간은 디지털통신에서 발생하는 전화요금등 서비스비용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PC통신을 이용해 학교교실이나 도서관에서 학습에 필요한 정보검색 및 전자회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PC통신 네트워크는 학습관련정보뿐 아니라 영화, 뉴스, 비디오게임 등 양방향 CATV에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미, 부가통신 사업 등록완화 요구

미국은 미국업체들이 한국의 통신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와 공정경쟁보장제도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체신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3,4일 양일간 워싱턴 미무역대표부(USTR)회의실에서 한·미통신협의회를 개최, 지난 91년에 체결된 한·미 합의사항 이행상태를 논의했다.

미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요건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DB)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의 공·전 접속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또 미국업체들이 한국의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할 때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보장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이를 위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내 음성전용회선의 공

·전 접속은 올 상반기중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밖에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측이 제2이동전화 사업자의 외국 기업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을 따지고, 주파수공용통신(TRS)용 자가통신 단말기수 제한 및 공동사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해커침투 시스템정보 활용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INTERNET)측은 한국을 포함, 전세계의 모든 가입자들이 즉시 사용중인 패스워드를 변경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터넷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미정부 산하 컴퓨터비상대책팀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불법 침입자(해커)들이 이미 인터넷 시스템정보 수만개를 훔쳐갔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측은 또 가입자들이 패스워드 도용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재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꾸는 수 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과학연구 및 일반정보 통신망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소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미 수천명의 가입자들이 있으며 조만간 일반인의 가입도 허용될 예정인 세계최대의 PC통신 매체다. 인터넷과 접속하는 개별 가입자들의 패스워드는 원래 가입자만 알도록 되어있다. 해커들은 보통 통신망을 운영하는 주컴퓨터에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프로그램을 침투시켜 주프로그램이 때때로 쉬는 토막시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해당 통신망의 정보를 훔쳐낸다.

이 프로그램은 일단 주컴퓨터 침투에 성공하면 가입자들이 통신망에 접속할 때 누르는 첫 1백28자(영문자와 숫자)를 따로 복사해 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을 침투시킨 해커가 접속해오면 이를 넘겨준다. 통신 접속시 처음에 입력되는 것은 가입자 이름과 패스워드 등이다.

미국, 데이터통신서비스의 신동향

미국 AT&T, 모토롤러, IBM 등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서비스개발에 나서 빠르면 올해안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연락할 일이 있으면 PC(개인용 컴퓨터)나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로 메시지를 만들어 전송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나머지는 통신서비스에서 알아서 한다. 상대가 전자우편(E-Mail) 네트워크(NETWORK)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화를 걸고 한 번호에서 안되면 다음 번호를 시도한다. 동료나 상사 혹은 무선호출기에도 연락한다. 마침내 상대를 찾으면 음성합성기술을 이용한 음성 메시지나 팩스·전자우편·PDA메시지 등 여러가지 연락수단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전해준다. 추가로 상대방이 분명히 연락을 받았다는 확인신호를 발신자에게 보내준다. 이들 3개업체가 추진하는 새로운 통신시스템 가운데 가장 야심적인 것은 AT&T의 “퍼스널링크”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앞에서 말한 메시지 전송 서비스외에도 PC통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자동적으로 검색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AT&T는 “렉시스(LEXIS)”와 “넥시스(NEXIS)”등 PC통신망을 갖고 있는 미드(MEAD)사와 계약을 체결, 원하는 사용자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퍼스널링크 가입자가 의학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특정질병에 대한 기사가 넥시스에 게재될 때마다 검색할 것을 명령하신 통신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이와 아울러 AT&T는 통신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숍사와 계약을 맺고 퍼스널 링크에서 “이숍(eSHOP)”이라는 이름의 전자쇼핑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전자쇼핑서비스는 입체화면으로 구성돼 마치 매장을 둘러보면서 쇼핑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 검색기능도 갖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의 가격과 기능 등을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 주문까지 대행해준다. AT&T는 이런 류의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를 6개 정도 갖추고 올 여름부터 퍼스널링크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퍼스널 링크의 핵심이 되는 기술은 최근 제너럴 매직사가

개발한 “텔리스크립트(TeleScript)”라는 이름의 통신프로그램이다. 일반전화기·휴대전화·PDA·PC·대화형TV 등 정보통신기기를 연결한 네트워크에서 상호간의 자료 검색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텔리스크립트는 복잡한 통신체계를 단순화 해 방대한 정보 가운데 얻고 싶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선택하도록 해주며 이를 다시 원하는 상대방에게 전송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너럴매직은 미국의 AT&T·애플컴퓨터·모토롤러, 일본의 소니·마쓰시타전기, 네델란드의 인티그레이션(MINI)”은 휴대전화·무선호출기 등 다양한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기업의 PC통신망에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기업 PC통신망은 물론 휴대전화·PDA·무선호출기에 직접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통신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모토롤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 역시 원하는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부가서비스 측면에서는 텔리스크립트를 채택한 퍼스널링크보다 뒤진다. IBM이 “인터치”란 이름으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통신시스템이다. 기업의 데이터통신망을 지역 및 장거리전화 회선을 이용해 다양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한다는 목적으로 개발중인 이 기술은 AT&T의 퍼스널링크나 모토롤러의 MINI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상대를 추적,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현재 AT&T·모토롤러·IBM 등이 개발하고 있는 이들 통신시스템의 시장성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잡한 무선 통신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기업인들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제 때 연락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US웨스트의 “램”무선데이터 통신망에 가입한 사용자가 모토롤러 IBM의 “아디스”시스템 가입자에 연결하려면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불편은 올해로 예정된 새로운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인 “CDPD”서비스가 제공되고 모토롤러사의 이 리듬이 본격 가동되면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가지 현재로서 불확실한 점은 텔리스크립트 등 복잡한 기술이

실제 상용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과연 실험실에서 처럼 유연하게 작동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적절한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물론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로이터, 공세적 사업확장

세계적 통신사이자 금융정보 서비스로 주식·외환시장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영국의 로이터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로이터는 지난 1월 미국 금융시장에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데이터 서비스회사인 쿼트론을 시티코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는 그 앞날에도 외환시장을 위한 금융정보를 올해 중반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의 공세는 이것만이 아니다. 로이터는 지난해 7월 새로운 사업에 5억2천2백만달러(약 4천2백억원)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돈은 그 절반 정도일 뿐이다. 그 뒤 로이터는 8월 영국의 무선호출기회사 “퓨처페이저”를 인수했으며, 11월에는 의사들에게 의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뱌프헬스”를 사들였다. 이어 12월에는 △광고대행사 등을 대화형으로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의 “애드 밸류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캘리포니아의 “테크네콘 소프트웨어” △컴퓨터용 긴급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세이프티네트”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등 투기적으로 보일 만큼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이터는 이런 움직임들이 18개월 동안의 세심한 검토를 거친 일관된 방향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방향은 앞으로 금융 거래의 주요 수단이 될 텔레비전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으로 애드 밸류 테크놀로지 주식의 매입이 그 예다. 그러나 92년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공급회사인 비스뉴스를 사들였으나 별 재미를 못 본 경험도 있어, 로이터는 컴퓨터거래체제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투자가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자가 2천명밖에 안되는 뱌프 헬스를

사들인 것은 여기서 노하우를 쌓아 전문가 대상 컴퓨터체제에 대량 투자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로이터는 말한다.

로이터는 80년대에 컴퓨터를 통한 외환·주식 거래체제인 “인스티 네트”와 거래소의 통신체제 설계회사인 “리치”를 사들여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하는 멀티미디어·컴퓨터 기술은 기존 금융거래체제를 뒤 흔들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로이터의 전략은 이런 시대 흐름에 적응하면서 공세적으로 시장을 넓혀 가겠다는 것이다.

미국 ZIFF社, 온라인 서비스

미국, 컴퓨터잡지 출판분야의 선발기업인 “지프-데이비스 퍼블리싱社”가 자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사는 이의 일환으로 첨단 전자시대를 맞아 출판업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범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전자정보 서비스 사업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사업을 위한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한 계열사인 지프-데이비스 인터랙티브사의 랍리핀코트 부사장은 앞으로 PC 컴퓨팅, PC 매거진, PC워크, 맥 유저, 맥 워크, 컴퓨터 쇼퍼, 컴퓨터 게이밍 월드 등 자사 출판물들을 인터체인지 온라인 네트워크란 신사업부문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에게 서비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핀코트 부사장은 앞으로 6개월안에 서비스 실험을 시작해 올 여름 중반까지는 수만명 규모로 서비스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프사는 이번 가을경에는 전국규모의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비용은 월기본료 10-15달러에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지프사외에도 AT&T사와 애플컴퓨터사가 최근 유사한 온라인 정보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DC사등도 관련산업 진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독일 크베레, 쌍방향TV로 홀쇼핑

독일의 대규모 통신판매회사인 크레베社は 쌍방향TV에 홈쇼핑인 "HS"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내에 뉴미디어를 연구테마로 한 작업부회를 설치했는데 2-3년후에는 전용채널로 모든 상품을 소개할 방침이다. 특징은 정보내용의 확대에 추가해 정보입수, 주문/지불 프로세서의 간이화인데 현재 상품정보는 카타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는 소비자가 리모콘장치로 희망하는 상품을 즉시 화면에 호출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동화상에 의한 정보제공도 가능한바 예를 들면 기기의 취급을 위해 난해한 설명서를 읽는 대신에 TV로 취급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동사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소비자 전체의 약 50%가 통신판매를 이용하고 있는데 18-30세의 연령층에 의한 통신판매 이용도가 극히 낮다고 한다. 쌍방향TV의 주요 이용자는 이 연령층이라고 보고 일거에 고객층 확대를 노리는 것인데 멀티미디어시대의 새로운 판매형식인 HS는 2천년에는 매상고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AT&T, IBM등 3개업체 컨버터박스공급자 선정

미국 지역 벨 사업자인 벨 애틀랜틱사는 정보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화상서비스용 컨버터박스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벨 애틀랜틱이 선정한 업체는 IBM, 필립스미자회사 및 미국의 디비컴사 중심의 컨소시엄 등이다. 이는 지역벨사들 가운데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벨 애틀랜틱사가 98년까지 1천2백만명의 가입자에게 전화선을 통해 화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컨버터박스 시장에 이들 3개업체가 우선 진출하게 되었다. 컨버터박스는 CATV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온라인 디지털화상정보를 해독하는 디코더 기능과 프로그램선택 SW를 운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벨애틀랜틱에 컨버터박스를 공급키 위해 경합을 벌인 업체는 제너럴 인스트루먼트(GI), 인텔, 사이언티픽 애틀랜타, 실리콘 그래픽

스, 제니스사 등이다. 벨 애틀랜틱은 이번에 선정된 3개 업체외에 추가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GI사는 벨 애틀랜틱이 인수한 TCI사와 컨버터박스 공급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日本 후생성, 약물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화』 착수

일본 후생성은 여러가지 의약품의 혼합복용에 의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막기 위해 가까운 지역의 약국에서 간단히 약물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착수해 몇년안에 모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후생성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살 수 없는 의료용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과 위장약 등 일반용의약품, 또 음식물과의 복용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사항들도 자료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연구반을 가까운 시일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약물상호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완성되면 환자가 의사로부터 받은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 가면 약국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다른 병원에서 동시에 받고 있는 약과의 상호작용 등과 함께 음식물에 대한 주의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후생성에 따르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작년 항바이러스제 '소리부딘'가 항암제의 병용복용으로 15명이 사망한 약화사건을 교훈으로 긴급히 착수를 결정할 것으로 이외에도 당뇨병환자가 복용하는 혈당강하제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할 경우 혈당치가 너무 내려가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또 알레르기성비염약과 진통효과가 있는 위장약을 병용하면 변비 등을 쉽게 일으키는 등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편 후생성의 조사에서는 70세이상의 노인의 절반 정도가 복수의 병원의 다니고 있고 다가오는 고령자 사회의 진전과 함께 약물상호작용의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미정부, 하원의 통신규제완화입법 환영

미국 행정부는 지역전화업체들의 장거리전화시장 진출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원의 통신규제완화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애니 빙거맨 법무부차관은 하원의 통신규제완화법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행정부의 입장을 최근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밝혔다. 하원의 규제완화법안은 미국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보고속도로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벨사들의 장거리전화와 통신장비 및 케이블(CA)TV 시장진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원의 규제완화 법안은 법무부와 연방통신 위원회(FCC)의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미국 MCI社, 멕시코 통신시장 진출

미국 2위의 장거리전화업체인 MCI커뮤니케이션즈사가 멕시코 장거리전화서비스시장에 진출한다. MCI는 멕시코 최대 금융업체 바나치(BAN-ACCI)그룹과 각각 45대 55의 투자비율로 장거리전화업체를 설립, 오는 97년부터 멕시코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96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마, 몬테레이 등 멕시코의 3대도시를 광통신망으로 연결, 음성 및 화상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MCI는 우선 올해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99년까지 멕시코 전역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MCI의 이번 멕시코합작사 설립은 동사가 그동안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통신량증가에 대비해 추진해온 캐나다에서 유카탄 반도에 이르는 북미전역서비스망을 경쟁업체인 AT&T에 한발 앞선 조치로 평가된다. 양사는 이번 사업에 대해 멕시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별다른 난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간 60억달러의 통신시장을 독점해온 멕시코 국영통신사업자 텔멕스(텔레포노스 데 멕시코)사는 MCI사의 멕시코시장진출에 따라 미국 AT&T사와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NTT의 일본 네트워크상 분석

일본의 NTT가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이해 몇가지 실험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했으며 유저의 니드도 큰것이 고속, 광대역 백본 네트워크이다. 고속 LAN간 접속, 대용량 파일 전송 등 고속 컴퓨터통신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95년중 실험개시를 예정하고 있다. 중계 전송로의 통신속도가 매초 10GB이며 유저망 인터페이스의 속도가 동 156MB로 세계최고속을 노린다.

미국 클린턴정부가 추진하는 쏘미국 정보통신망(NII) 구상의 진전을 의식한 것이기도 한데 주목되고 있는 통신, 방송의 융합실험의 경우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키위한 트라이얼부터 통신과 방송의 법제도상 문제 등 상용화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 비해 백본 네트워크는 실제 기업유저, 연구기관을 포함한 즉시 상업화를 노리는 실험이 된다. 이 실험에서는 현재 NTT가 전국적으로 구축을 완료시킨 광화이버 간선을 사용하는데 교환시스템에는 현재의 동기전송모드(STM)에 비해 고속성에 뛰어난 비동기전송모드(ATM) 기술을 베이스로한 교환기, 링크시스템, 전송시스템을 채용한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마쓰야마, 니가타, 센다이, 삿포르 등 10개 도시에 ATM 교환시스템을 설치해 고속 전용선의 형태로 제공해 나간다. 위상은 사내 OA망으로 AT&T의 연구소간 등에서 고속 LAN간 통신실험을 하게되는데 기업, 정부의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요구가 있으면 공동이용의 형태로 실험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기 상업화를 위해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백본 네트워크의 특징은 ATM기술을 사용해 고속,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중계전송로의 통신속도는 현재의 고속 디지털 전용선 속도가 최고 매초 2.4GB인것에 비해 동 10GB로 4배 이상이며 유저간 전송속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통신속도는 현재의 동 6.3MB에서 156MB로 비약적 향상이 된다. 유저 인터페이스의 속도가 초 100MB를 넘으면 영상으로는 고정세컬러TV영상, 신문으로는 컬러 정세화 1페이지분을 1초만에 전송할 수 있으며 고속 LAN인 FDDI간 통신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현재 연구정보 네트워크의 최대인 NFSNet(전미국과학재단네트워크)이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의 통신속도는 매초 45MB라고 하며 94년에는 150MB로 고속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 바 NTT의 백본 네트워크는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노리게 된다. 이미 대기업에서 연구소사이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의 이용에 대해 문의가 있다고 한다. 미국 NII구상은 최종적으로는 가정까지 광화이버로 연결하는 것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는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특화시킨 고속 네트워크의 실험프로젝트를 타겟으로 두고 있는데 NTT도 2010년에서 2015년에는 전국의 가정까지 광화이버를 연결하는 계획을 세워 미국과 일본과 멀티미디어시대를 앞둔 통신 하이웨이 구축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NTT가 백본 네트워크라는 세계 최고급 전용서비스의 실험을 거의 실제 상용레벨과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은 미국 NII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T&T, "스펙트럼"프로젝트 참가

미국의 AT&T는 LAN 관련기기의 대기업인 케이블 트론 시스템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간 네트워크 관리프로그램인 스펙트럼에 참가하기로 케이블 트론사와 합의했다. 이결과 양사의 음성/데이터 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정보관리와 전화의 통합이 표준화를 향해 움직이게 되었다. 양사 합의에 의하면 AT&T가 케이블 트론의 스펙트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AT&T는 자사의 포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디파니티의 기능을 스펙트럼에 집어넣어 스펙트럼 관리스테이션에서의 LAN, WAN, PBX를 포함한 음성과 데이터 네트워크 일원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스펙트럼은 케이블 트론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기업내 네트워크 관리에서 세계유일의 프로토콜에 영향을 받지 않은 플랫폼이라고 한다. AT&T의 스펙트럼 가입에 대해 케이블 트론의 마케팅 디렉터인 말콤 윌 슈씨는 음성과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어 단일 플랫폼으로써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종합적인 기업내 관리의 실현이라는 동사의 목표를 향해 비즈니스 중심에서 질적이 있는 AT&T를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KDD, "광소리튼" 9천1백km 전송실험 성공

일본의 KDD(국제전신전화)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광소리튼"을 이용하여 매초 10GB의 데이터정보를 9100km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송출신호의 증폭을 상호 변화시키는 교번증폭방식을 채용하여 신호간 간섭으로 데이터의 오류전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소리튼을 이용한 차세대 통신케이블의 실용화에 한발 다가섰다.

소리튼은 바다나 하천의 파도가 일정한 속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성질을 살린 통신기술인데 광화이버속을 광신호의 약화없이 장거리 전송을 할 수 있다. 실용화가 되면 동화상 전송등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KDD는 연구소내에 원주 91km의 광화이버를 사용하여 신호를 100바퀴 전송시키는 실험에 성공하였는데 부호오차율은 10억분의 1 이하로 실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화이버내부 광신호는 인접한(펄스) 것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하여 장거리 전송시 데이터의 오류전송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실험에서는 송신시 파의 진폭을 상호 변화시킴으로써 간섭을 억제했다. 이 교번증폭방식을 전송로 도중에 증폭 등의 처리가 필요없이 안정된 신호를 장거리 전송할 수 있어 해저케이블에 유용하다고 한다.

일본, JCM의 쌍방향 무선데이터통신

일본의 수도권에서 무선데이터통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시티미디어(JCM)사는 금년봄부터 동사의 쌍방향 이동통신 시스템인 텔레터미널을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NEC와 다무라전기제작소에서 쌍방향 무선서비스전용 휴대정보통신 단말인 메세쥬를 조달하여 2월과 4월에 각각 발매한다. 간단한 문장과 손기록 문자, 지도 등을 펜터치로 단말에 입력한 후 송신하면 같은

단말을 가진 사람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이른바 쌍방향 포켓벨이다. 종래의 쌍방향 서비스는 동사의 무선 모뎀에 시판되고 있는 소형 워드프로세서나 퍼스컴을 연결해야만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했는데 20만엔인 모뎀 외에 10-20만엔을 하는 노트북 퍼스컴 등이 필요하다. 한편 메세주는 9만8천엔과 12만8천엔으로 도입코스트가 약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기능면에서는 워드프로세서와 퍼스컴에는 못미치지만 간단한 메시지 교환에는 적합하다. 메세주는 포켓벨만큼 작지 않아서 큰 액정화면을 갖춘 포켓벨에 통신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무게는 590g으로 가방에 넣고 다녀도 별로 무겁지는 않다.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액정화면에는 [두다, 보다, 손기록, 메모, 설정]등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용 소형펜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그후의 조작방법이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예를 들면 손기록 항목을 선택한 경우 소형 펜으로 화면에 문자를 기록하면 자신의 필적대로 표시가 되며 최대 2백문자까지 기록이 가능한데 송신상대는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월액 기본료가 2천4백엔이며 1패킷의 통신료가 1엔 20전인데 회사의 상사가 어느곳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일체히 영업사원에게 보내면 한사람씩 포켓벨로 호출하여 연락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통신비의 절감에도 유용하다. 문자뿐 아니라 음성과 팩시밀리 송신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단말의 대여도 검토중인 바 비지니스맨과 학생 등의 이용을 전망하고 있다.

일본판 『정보하이웨이 구상』에 30개社 참여

지난 2일, 일본의 신세대통신망실험협의회(BBCC)의 차세대통신망 B-ISDN(광대역 종합디지털 통신망) 이용실험에 참가할 기업과 실험내용이 확정되었다. 참가기업은 일본전신전화(NTT), 간사이전력, 도시바, 스미토모전기공업 등 약 30개사로, 먼곳에 있는 LAN(구내정보통신망)을 접속하는 실험, 화면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등 9개 실험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들 기업은 일본판 '정보수퍼하이웨이 구

상'의 선두 주자가 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거쳐, 기술보급·개발을 지향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기술의 국제표준규격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위원회회가 오는 9월 교토에서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서 실험의 성과 중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떨어진 사무실에 있는 LAN을 B-ISDN으로 접속하는 '고속LAN' 실험에는 간사이전력, NTT, 스미토모전기공업, 도시바 등이 참가할 예정인데, 건축용 CAD(컴퓨터에 의한 설계)로 그린 도면의 고속전송, TV회의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등을 실험할 예정이다. 움직이는 화면이나 정지화면, 음성 등이 축적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실험에서는 간사이전력, 히타치제작소, 후지쓰, 도시바 등이 원격지에서 도서관의 장서를 검색,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실험할 예정으로, 간사히학연도시에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국립 국회도서관 간사이관'(가칭)의 모델로 할 계획이다. 설제도를 화면이나 프린터로 주고 받는 실험에서는 다이와하우스 공업, 오키전기공업 등이 '대화형 컴퓨터에 의한 주택설계'를 실험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러사람들이 쌍방향으로 화면을 통해 대화하는 등 리얼타임(동시진행)의 화상을 전송하는 실험에서는 오사카가스, 영어회화학교인 NOVA외국어학원 등이 분산된 여러 사무실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실험할 예정이다. 또한 초음파스캐너나 렌트겐사진을 전문의에게 전송, 진단받는 실험도 교토대학과 오사카대학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캐달로그 쇼핑'에는 대형 통신판매회사인 샤테이사 등이 이미 참가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새 회사 자본정비의 일환으로 실험에 제3차 보정예산이 추가되면 참가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ITU회의를 향한 일본판 '정보 수퍼하이웨이' 실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NIFTY, 고속 PC통신서비스 시작

일본 니프티는 SW프로그램의 송수신 등 PC통신에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초 14.4K비트급 고속 PC통신 서

비스를 시작기로 했다. 이는 PC통신 서비스의 표준전송속도보다 3~6배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상정보의 전송도 쉬워지며, PC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현도 가까워졌다. 니프티는 모회사인 후지쓰의 VAN(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해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후지쓰의 VAN'FENICS'의 네트워크를 강화기로 했다. 니프티는 VAN의 각 액세스포인트에 매초 14.4K비트 수준의 통신속도에 대응하는 고성능 PAD(비파괴형 단말 접속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PAD는 PC상에서 표현된 문자를 패킷교환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X-25 표준프로토콜데이터로 변환해 패킷(소포)화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 회사는 이미 PAD를 이용한 전송실험에 착수했다. 한편 니프티측 메인컴퓨터도 데이터의 대량전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매초 14.4K비트급 고속서비스는 우선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수시로 대상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서비스요금은 아직 미정이다. PC통신 서비스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주고 받는 '프리 소프트웨어'나 화상통신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속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또 고속모뎀의 값이 떨어지는 등 고속통신 서비스의 주변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니프티가 제공하는 PC통신 서비스의 전송속도는 현재 매초 3백~9백비트이다. 현재까지 PC통신 전체에서도 전송속도는 매초 2천4백비트와 4천8백비트가 주류이며, 9천6백비트급 액세스포인트도 많지 않은 상태이다. 매초 14.4K비트급 서비스는 상업용 PC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아스키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번에 59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니프티가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업계 전체에서 PC통신서비스가 고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보고속도로』 적극추진

프랑스는 현재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와 유사한 형태의 '전자통신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랭 카리

농 프랑스 통신장관은 최근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 카기로지와의 회견에서 2000년대의 고속 광케이블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전자통신고속도로의 개념은 양방향통신 개념을 개초로 컴퓨터·TV 및 화상전화를 광케이블망을 통해 하나로 묶는 것이다. 알레장관은 이러한 전자통신고속도로가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프랑스 국민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CompuServe社, PC통신요금 대폭 인하

미국 퍼스널컴퓨터 통신서비스회사인 컴퓨서브사는 데이터베이스와 메일박스 등 각종 서비스 사용요금을 최대 40% 내리기로 했는데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컴퓨서브사는 이미 작년 봄 요금을 크게 내린 바 있어 2년전 비하면 이용 요금은 반액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최근 미국의 퍼스널컴퓨터 통신업계는 회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는데, 컴퓨서브사는 이용료를 크게 내림으로써 1위인 미국 프로디지사를 추격할 방침이다. 컴퓨서브사 회원은 한달에 8.95달러의 고정요금과 실제로 통신망에 접속했을 때 접속요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이중 접속요금 제도를 바꾸어 회원이 갖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모뎀 종류에 따라 시간당 접속요금을 6~16달러에서 4.8~9.6달러로 내리기로 한 것으로, 이 회사는 작년 봄에도 이용요금을 평균 40% 내린 바 있어 2년째 값을 내린 셈이다. 컴퓨서브사는 요금을 내린 이유로 '통신망에 사용하는 컴퓨터나 하드웨어가 값이 떨어져 운용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요금을 낮춤으로써 이 회사의 이익율이 떨어질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컴퓨서브사는 현재 회원 1백60만명을 갖고 있는데 작년 1월 후반인 프로디지사가 회원수에서 앞서 현재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컴퓨서브사는 반격을 가하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울러 요금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데이코쿠호텔, 음식 조리방법 DB구축

일본 데이코쿠호텔은 호텔내 레스토랑 메뉴의

조리방법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96년 오사카 개업과 커뮤니티호텔(교외입지의 지역밀착형 호텔)의 전개 등으로 조리부문 종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리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쉽게 하고 기술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조리방법 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지를 전하는데 중요한 요리의 컬러사진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데이코쿠호텔은 96년 오사카 개업까지 약 3만가지 요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인데, 조리방법을 대규모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일본 호텔업계에서 처음이라고. 데이코쿠호텔은 현재 각 레스토랑이 개별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요리와 과자류 사진이 붙은 조리방법을 수집해 광학식문자해독장치(OCR)를 이용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미 3천가지 메뉴를 등록했다. 조리방법에는 조리순서와 재료, 요리를 내는 시기, 레스토랑 이름과 요리의 영어명 혹은 불어명을 기재하는데 실제로 점포에서 사용한 메뉴도 영상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또한 육류의 부위별 구분법, 야채 다듬는 방법 등 조리에 관한 기초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검색화면은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리현장과 메뉴를 비교 검토하기 편리하다. 보통 호텔내 레스토랑 메뉴

는 반년에 한번 바뀌는데 연회요리는 주최자측 예산과 기호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만들어지므로 실제로 사용한 메뉴 분량은 상당히 많아진다. 이번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신 조리방법 외에 옛날 것에 대해서도 이 회사의 보존자료와 조리 스태프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요리메모를 활용해 등록할 예정인데, 이중 가장 오래된 것은 개업할 무렵인 1890년 11월의 레스토랑 메뉴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레스토랑 이름과 요리가 제공된 시기, 육류요리, 생선요리 등을 지정해 검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새 메뉴를 작성할 때는 이전 조리방법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데이터베이스로 하면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데이코쿠호텔은 4월부터 도쿄 히비야 본사에서 시험적으로 이용개시하며 앞으로 모든 조리장에 단말기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메뉴 작성과 스태프 양성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데이코쿠호텔은 92년 중소 연회장을 가진 커뮤니티호텔을 치바현에 개설했으며, 2001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5개 호텔을 전개할 계획이다.